

전북도의회 의정 중계식

“연말정산 자녀인적 공제액 500만원까지”

김기영 의원, 자녀 1인당 150만원에서 확대 건의
“기본인적공제대상 자녀 연령요건 25세까지 상향조정될”

통상 13월의 월급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기본인적 공제금액을 500만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전북도의회 김기영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익산3)은 “출산장려를 위해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에 공제하여 주는 자녀 1인당 150만원인 기본공제 금액을 500만원까지 확대할 것과, 기본공제대상 중 직계비속의 연령제한을 최소한 대학을 졸업

하여 독립된 생계능력이 갖추어지는 나이인 25세로 상향조정 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김기영 의원에 따르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의식주 중 음식재료비만 해도 1일 1만원으로 1년 365만원이 필요한데 150만원의 기본공제금액은 평균 조세부담률 15%로 계산할 경우 22.5만원의 세금 절감 효과에 불과하여 직계비속인 자녀 등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이 출산장려의 유인책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을 현재의 세배 수준인 500



만원으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현재 소득세법은 기본공제대상 이 되기 위한 부양자녀의 연령요건을 2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70%를 넘어서고 있는 것과 대학 졸업 후 첫 취업을 할 때까지 5년 정도의 기간을 감안할 때, 기본공제대상 중 직계비속의 연령제한을 최소한 대학을 졸업하여 독립된 생계능력이 갖추어지는 나이인 25세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관련 광주지역 원로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문 대통령 “5·18 망언에 분노”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장·시민사회 원로 초청 오찬서
“국가 공권력이 시민 생명 유린… 역사 폄훼에 함께 맞설 것”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상처받은 5·18 영령들과 희생자, 광주 시민들께 대통령으로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장 및 광주 시민사회 원로 초청 오찬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부 망언이 계속된 데 대해 저 또한 분노를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지난 18일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망언을 공개적으로 강력 비판한 것에 이어 이날 만에 수위를 조금 높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5·18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저 자신도 5·18 때 구속된 일이 있었지만 제가 겪은 고통은 아무 것도 아니었다”며 “광주의 진실은 자에게 외면할 수 없는 분노였고, 아픔을 함

께 나누지 못했다는 크나큰 부채감이었다”고 토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5·18 37주년 기념식 기념사를 언급하며 “5·18은 국가의 공권력이 시민의 생명을 유린한 사건”이라며 “광주시민들은 그에 굴하지 않고 희생 속에서도 맞섰고, 이는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기둥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 위대한 역사와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완전한 민주주의를 이룰 것”이라며 “진상규명 또한 끝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약속과 함께 5·18 역사 폄훼 시도에 대해서는 저도 함께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문건위, 독립국악원 등 방문 현장활동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운)는 20일, 문건위 소관기관으로 전주에 소재하고 있는 독립국악원, 전라북도 문학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및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판매관을 시찰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독립국악원에서는 국악원 현황과 국악원관 신축중인 전통문화체험 전수관 공사현황을 보고받았다. 문건위원들은 전수관 신축을 계기로, 예술단의 부족한 연습공간 해결을 통해 질 좋은 공연이 추진되고, 아울러

전통예술 연주체험 공간 확보로 도민의 문화체험기회가 확대되어 도민과 친밀한 국악 교육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전라북도 문학관에서는 현황보고 후, 본관 전시실과 문예관 등 내부시설을 시찰했다. 문건위원들은 문학관 전시현황과 전시실 활용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앞으로도 문학관 활성화와 도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 볼거리 제공으로 문학관 방문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문

화 향유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방문한 의원들은 국제회의장 세미나실에서 현황을 보고받은 후, 모악당과 명인홀을 시찰하며, 공연 전반에 대한 안전을 점검했다.

한옥마을에 위치한 전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판매관을 방문한 문건위원들은 전북의 지역특성과 문화적 특색을 바탕으로 다른지역과 차별화된 우수한 관광기념품을 더 많이 육성·발굴하여 전북 관광기념품산업의 활성화와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달라고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박근혜 사면에… 황교안 “기대” 오세훈 “이르다” 김진태 “무죄석방”

한국당 당대표 출마 TV토론회서

자유한국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 온도 차를 보였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국민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은 “이른 감이 있다”, 김진태 의원은 “사면이 아닌 무죄 석방”을 강조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채널A 사옥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3차 TV 토론회 참석해 “박 대통령께서 상당히 오랜 기간 구급대

였다.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며 “사면에는 어떤 법적적인 절차들이 필요하지만 국민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는 사면 결정이 있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두 분 직접 대통령을 감옥에 계시게 하는 경우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경우일 것”이라면서도 “법률적으로 보면 아직은 대법원판결 절차에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면을 합법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좀 이른 감이 있다”라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기대하고 해결복결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투쟁을 해야 한다”라며 “정권을 가져오던지 그전에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키든지 이런 힘으로써만 가능 하리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여성위원회가 20일 발대식을 연 가운데 5·18 망언을 벌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제명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 전북도당 여성위원회 발대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안호영 국회의원) 여성위원회(위원장 김이재 전북도의원)가 20일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여성위원회는 이날 전주아름다운컨벤션 웨딩홀에서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 송성환 전북도의원, 이원택 전북도 정무부지사 등 당원 및 여성당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위원회의 정책사업 발표와 교문과 여성부위원장단 임명장을 전달했다.

발대식에 앞서 이상직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이사장의 ‘전북의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이 열렸다.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발대식을 통해 전북도당의 여성당원들의 능동적인 정치참여 확대와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대안을 마련해 여성이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들어 가는 초석 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성위원회 발대식과 함께 5·18 망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대회도 함께 열렸다. /김진성 기자

김중회, 미세먼지 피해 농가 지원 법안 발의

작은 미세먼지 발생으로 농작물 등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농가를 지원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중회의원(김제·부안)은 “미세먼지를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시켜 미세먼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고, 농업재해보험 보상도 가능하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미세먼지 특별법’이 지난 15일 시행되고 국무총리가 직접 관할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도 가동 이 되었지만, 미세먼지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성 기자



임실군이 최고의 품질을
‘이북속함시다’

열매의 고장 임실이 빛어낸 보물, 농축산물!

이북속함시다

이북속함시다

이북속함시다

이북속함시다

이북속함시다

이북속함시다

이북속함시다

이북속함시다